

이슈 브리핑

🔴 이슈 요약

- ◆ 中 정부, 자동차 업계의 온라인 허위 광고 및 악의적 비방 행위 근절을 위해 3개월 특별 단속 캠페인에 착수
- ◆ 中 최대 LiDAR 업체 Hesai, 사업 리스크 분산 및 자금 확보를 위해 홍콩 증권거래소에 추가 상장
- ◆ 中 스마트 주행 솔루션 업체 Horizon Robotics,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Hello와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협약 체결
- ◆ 美, '25년 9월 30일 연방 EV 세액공제 종료 확정에 따라 10월 이후 EV 판매 둔화 가능성 제기
- ◆ Amazon, EV 배송 차량의 조달처 다각화를 위해 GM의 EV 밴 「BrightDrop」 테스트 착수
- ◆ Toyota,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한 PBV 「e-Palette」 일본 시장 내 정식 출시

◆ 中, 자동차 업계 대상 온라인 허위 광고 단속 강화

- 중국 공업정보화부(MIIT)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'자동차 업계 인터넷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 캠페인 실시'에 관한 통지*를 9월 10일 발표하고, 3개월 동안 특별 단속 캠페인 시작

* 工信部('25.9.10) 关于开展汽车行业网络乱象专项整治行动的通知

- 중국 자동차 업계는 과열 경쟁으로 인해 CEO의 인플루언서화, 격화된 팬덤 문화, '온라인 회색 산업'이 뒤얹히며 혼란이 심화되었다는 평가
-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각종 조작을 통한 불법적 이익 추구, 스펙·품질 관련 허위 광고, 악의적인 경쟁사 비방 등을 집중 단속하는 데 있음

Bloomberg('25.9.10) <http://bit.ly/4gpZmHX> China Daily('25.9.15) <http://bit.ly/46EXk3j>

◆ 中 최대 LiDAR 생산 업체 Hesai,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

- 중국 최대 LiDAR 생산·솔루션 업체 Hesai는 9월 16일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약 42억 홍콩달러(약 7,400억원)를 조달
- 동사는 '23년 나스닥 상장으로 1.92억 달러를 조달했으나, '24년 미국방부의 '중국 군사기업'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대미 영입이 제한되자, 홍콩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 및 미·중 갈등 리스크 분산을 시도

Bloomberg('25.9.16) <http://bit.ly/4nxhWAg> Nikkei Asia('25.9.16) <http://bit.ly/4pnQnLh>

◆ 中 Horizon Robotics, 로보택시 시장 진출을 위해 Hello와 협력

- 中 스마트 주행 솔루션 기업 Horizon Robotics*가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Hello**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

* 中 시장 내 ADAS 컴퓨팅 솔루션 1위 기업으로 최근 글로벌 확장 시도 중

** '16년 설립된 공유 자전거 등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, Alibaba도 투자에 참여

- Horizon Robotics는 직접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대신 Lv.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Hello의 로보택시에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는 포석

Gasgoo('25.9.12) <http://bit.ly/4ntjsmN>

YiCai('25.9.12) <http://bit.ly/3II5Qv9>

◆ 美 EV 연방 세액공제 종료로 EV 판매 둔화 가능성 제기

- '25년 9월 30일부로 미국의 연방 EV 세액공제(신차 7,500달러, 중고 4,000달러 이내) 제도 종료 확정. 다만, 미 국세청 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기한 前 서면 계약 및 일부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- 막판 수요로 인해 美 EV 판매량은 8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, 10월 이후 수요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
- 이에 일부 완성차 기업은 판매 둔화 대비를 위해 단기 생산조정*을 추진

* (GM) 공장 일부 모델 생산 연기, (Ford) 전기차 투자 비용 감축 언급 등

Bloomberg('25.9.9) <http://bit.ly/41WmMPc> IRS('25.8.12) <http://bit.ly/4nrWgW8>

◆ Amazon, 배송 차량 다각화의 일환으로 GM의 EV 밴 테스트 중

- Amazon은 '30년 배송 차량 10만 대의 EV 전환*을 목표로 다양한 EV 밴을 테스트 중이며, 최근 GM 「BrightDrop」을 테스트 대상에 추가

* 현재 Rivian 밴 2.4만여 대를 포함, 총 3.1만 대 이상의 EV 배송 차량 운용 중

- 이번 시범 사업은 Rivian 등 일부 기업에 대한 조달 의존도를 낮추는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, 그간 BrightDrop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GM에는 라스트마일 시장 공략에 있어 반등의 기회로 평가됨

Bloomberg('25.9.13) <http://bit.ly/46oGlvo> USA Today('25.9.13) <http://bit.ly/3HYnsgk>

◆ Toyota, 목적 기반 모빌리티(PBV) e-Palette 정식 출시

- Toyota는 '18년 CES에서 컨셉을 공개한 후 수년 간 개발을 걸친 PBV 「e-Palette」를 9월 15일 일본에 정식 출시(판매가 2,900만 엔)
- 미니 셔틀버스 형태인 e-Palette는 고객 수요에 맞추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응가능한 점이 특징적이며, 현재는 유인 운전을 상정하나 '27년경 자율주행(Lv.4) 모델로도 출시될 예정
- 또한 이 차량은 10월에 신규 개장하는 'Toyota Arena Tokyo'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셔틀 및 이동형 매장 등으로 시범 활용될 예정

Nikkei Asia('25.9.16) <http://bit.ly/4pr7sEh> Toyota('25.9.15) <http://bit.ly/46lypAp>